

가톨릭 대학교  
ON CATHOLIC UNIVERSITIES  
*EX CORDE ECCLESIAE*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헌장

목 차

서문

제 1 부: 정체성과 사명

A. 가톨릭 대학교의 정체성

1. 본질과 목적
2. 가톨릭 대학교 공동체
3.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가톨릭 대학교

B. 가톨릭 대학교의 봉사적 사명

1. 교회와 사회에 대한 봉사
2. 사목적 봉사
3. 문화적 대화
4. 복음 선교

제 2 부: 일반 규범

잠정적 규범

결론

## 서 문

1. 교회의 “심장 “에서 태어난 가톨릭 대학교는 대학이란 교육기관이 생겨났던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을 만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 가톨릭 대학교는 지금껏 인류에 선익을 주는 지식을 창조하고 보급하는 가장 확실한 기관으로 항상 인정받아 왔다. “교수들과 학생들의 세계” (*Universitas magistrorum et scholarium*)로서 가톨릭 대학교는 본연의 소명에 따라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지식에 대한 같은 사랑으로 서로 자연스럽게 선생들과 관계를 맺는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헌신한다.<sup>1)</sup> 가톨릭 대학교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진리에 대한 기쁨” (*gaudium de veritate*), 즉 진리를 탐구하고 발견하며 다른 모든 지식 분야와 진리를 교환하는 기쁨을 다른 모든 대학교와 함께 나눈다.<sup>2)</sup> 가톨릭 대학교가 수행해야 할 특별한 임무는 “실제로는 진리에 대한 추구하고 진리의 원천을 이미 알고 있다는 확신은 한 실재(reality)를 나타내는 두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반대의 것인 양 너무 자주 대치된 상태로 놓이는 경향을 지닌 이들을 지성적 노력에 통해 실존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2. 나 자신은 대학생활 때 했던 수년의 경험을 통해 깊은 풍요로움을 체험했다. 즉, 진리에 대한 열렬한 추구, 젊은이들과 열정적으로 사유하기를 배우는 모든 이들에 대한 사심 없는 진리 전달, 그리하여 그들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인류에게 보다 훌륭히 봉사하도록 하는 것 등이 내가 대학생활 중에 체험했던 것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톨릭 대학교에 대한 나의 깊은 경의를 나타내고 또 가톨릭 대학교 안에서 다양한 지식 분야를 통해 이룩한 업적들에 대해 나의 큰 감사를 표한다. 특히 주님께서 안배로서 나의 사도적 여행 통하여 여러 대륙의 가톨릭 대학공동체들과 가졌던 무수한 만남 중에 누렸던 기쁨을 널리 알리고 싶다. 내가 만났던 가톨릭 대학공동체들은 그리스도교의 정신이 각 문화의 심장 안에서 열매 맺고 있음을 나타내는 생생하고 확실한 표징이다. 가톨릭 대학공동체들은 나에게 그리스도교 문화가 다양하고 풍요롭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즉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지만 진리와 사랑의 성령의 활동으로 너무도 밝은 미래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서 새로이 꽃피울 수 있다는 확실한 희망을 준다.

나는 또한 비가톨릭계 대학에서 교수와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많은 가톨릭 신앙을 지닌 학자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한다. 학자와 과학도로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조명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그들의 역할은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대학의 선익을 위하여 소중한 것이다. 실제로 그 대학들에서 이들의 현존은 사심없이 진리와 천상으로부터 오

---

1) 참조. 교황 알렉산더 4세가 파리대학에 쓴 편지(1255년 4월 14일) 서문. *Bullarium Diplomatum...*, vol III, Turin 1858, p. 602.

2) Saint Augustine, Confes. X, xxiii, 33: "In fact, the blessed life consists in *the joy that comes from the truth*, since this joy comes from You who are Truth, God my light, salvation of my face, my God." PL 32, 793-794. Cf. Saint Thomas Aquinas, *De Malo*, IX, 1: "It is actually natural to man to strive for knowledge of the truth."

는 지혜를 추구하게 하는 자극이 된다.

3. 나는 교황 재직 시초부터 이런 생각과 느낌들을 나의 가장 친근한 협력자인 추기경들과 바티칸의 가톨릭 교육성, 그리고 전세계의 남녀 지성인들과 함께 나누어 왔다. 사실 교회가 우리시대의 다양한 문화들과 대화를 하는 것은 “20세기를 마감하면서 교회와 세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소중한 영역이다.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문화, 즉 인간의, 인간에 의한 그리고 인간을 위한 문화가 있을 뿐이다. 또한 교회는 가톨릭 대학교들과 그들의 인도주의적 및 과학적 유산에 감사하면서, 인간성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나의 전임자 바오로 6세가 유엔에서 천명하였던 바와 같이, 계시의 빛 안에서 인류와 세계의 신비들을 탐구한다.

4. 진리의 근원(the cause of truth, 하느님: 역자주)에 주저하지 않고 자신을 헌신하신 것은 가톨릭 대학교의 영예이며 책임이다. 이는 가톨릭 대학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동시에 “진리가 (교회)자신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그리고 지식과 이성은 신앙에 대한 확실한 봉사자라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는 교회의 선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방식이다. 가톨릭 대학교는 모든 유용한 지식을 획득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자연, 인간, 하느님을 포괄하는 온전한 진리를 자유로이 추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시대는 자유, 정의, 인간의 존엄성이 없는 근본적인 가치는 소멸될 거라는, 이른바 진리의 의미(the meaning of truth)를 선포하는 사심 없는 봉사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일종의 보편적 인본주의를 통하여, 가톨릭 대학교는 최고의 진리 곧 하느님과 필연적으로 연결을 맺는 가운데 모든 유형의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헌신한다. 가톨릭 대학교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로고스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지식에 이르는 모든 길에 자신을 헌신하면서 두려움 없이 열정을 갖고 진리를 탐구한다. 로고서로부터 파견된 지성과 사랑의 성령은 지성을 지닌 인격으로 하여금 로고스가 궁극적 실재의 근원이자 목적이며 또 그분만이 세상의 미래가 위협스럽게 되지 않을 하느님의 지혜를 충만히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궁극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5. 신앙과 이성의 관계가 빛을 받아 의미를 지니는 것은 진리를 편견 없이 탐구하는 상황 안에서 이루어진다. “믿기 위하여 알고, 알기 위하여 믿으시오”라고 했던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초대는 가톨릭 대학교들에게도 해당된다. 가톨릭 대학교는 계시와 자연의 보화를 대담하게 탐색하도록 소명을 받은 가톨릭 대학교는 지성과 신앙의 일치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하느님과 유사하게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범죄 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고, 성령의 빛 안에서 빛을 발하도록 불렀다는 인간성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얻게 해 줄 것이다.

6. 가톨릭 대학교는 복음의 풍요로운 구원 메시지와 이 복음의 풍요로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폭넓은 지식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 만남을 통해 가톨릭 대학교는 교회로 하여금 모든 문화의 사람들과 결실 있는 대화를 하게 한다. 인간의 생활은 문화로 인해 품위를 지니게 되나,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완성을 이루게 되며, 모든 차원에서 인간에게 다가가 그를 새롭게 하는 복음은 문화 역시 완성시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7.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눈부신 오늘의 세계 안에서 가톨릭 대학교가 수행할 과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절박해졌다. 과학과 기술의 발견들은 거대한 경제적 성장과 산업 발전을 가져오지만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의미 추구(search for meaning)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때 의미 추구란 새로운 과학기술적 발견들이 개인들과 사회전체의 근본적인 선의를 위하여 활용될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이 같은 의미 추구가 모든 대학교들이 갖는 책임이지만, 가톨릭 대학교는 보다 독특한 방식으로 이런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즉 가톨릭 대학교는 그리스도교적 영감을 받아 대학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들에 도덕적, 영적, 종교적 차원을 포함시키고 또 전인적 관점으로 과학과 기술의 결실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가톨릭 대학교는 “대학”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가톨릭”으로서 부단히 쇄신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과학과 기술적 연구와 사회생활과 문화의 올바른 의미이긴 하지만 한층 더 심오한 수준에서 중요한 것은 인격의 의미 그 자체”이다. 이러한 쇄신을 위해서는, 가톨릭 대학교들은 자신의 특성상 진리에 대한 편견없는(impartial) 탐구, 즉 어떤 유형의 이해관계에 종속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진리를 탐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8. 교회 대학과 대학교를 대해서는 이미 사도적 헌장 Sapientia Christina가 반포된 바 있다. 나는 가톨릭 대학교들을 위하여 Spientia Christiana와 유사한 일종의 “대헌장”을 제시해야겠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이 헌장은 교회가 고등교육 세계 안에서 오랜 동안 쌓아 온 유익한 경험에 의해 더 풍요롭게 보완되고 또 대담한 창조성과 종교적 확신을 요구할 미래의 위업에 개방된 문헌이다.

9. 이 문헌은 특히 가톨릭 대학교를 운영하는 이들, 학문연구를 수행하는 단체들, 또 이런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든 분들, 특히 주교들과 수도회들 및 교회 기관들 그리고 고등교육의 위대한 사명에 종사하고 있는 무수한 신자들을 위하여 반포된 것이다. 이 문헌의 목적은 “그리스도교 정신이, 예전에도 그랬듯이, 더 수준 높은 문화를 추구하는 모든 분야 안에서 공적이고 견실하고 보편적으로 현존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을 학업에서 뛰어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무거운 책무를 짊어지고 세상에 신앙을 증거하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다.”

10. 나는 가톨릭 대학교들뿐 아니라 또한 가톨릭 고등 교육기관들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의 본성과 목표에 의하면, 이 교육기관들은 가톨릭 대학교와 부분 혹은 전체적인 특성을 나누어 갖고 있으며, 연구, 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서 교회와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헌은 특별히 가톨릭 대학교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사람들의 영혼과 문화 안에 주입시키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가톨릭 고등교육 기관들도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큰 신뢰와 기대를 품고, 모든 가톨릭 대학교들이 자신의 대체할 수 없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초대한다. 교회가 현대의 발달된 과학과 문화들 속에 들어

가기 위해서 가톨릭 대학교의 사명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나와 더불어 사목적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주교 형제들과 함께 나는 가톨릭 대학교야말로 교회가 확신과 지혜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주는 가장 훌륭한 도구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확고한 신념으로 나타내는 바이다.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지닌 교회는 가톨릭 대학교에 대한 관심을 잊은 적이 없다. 가톨릭 대학교는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교회로 하여금 현대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새롭고 동시에 묵은” (nova et vetera) 문화적 보화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11. 끝으로 나는 전체 교회에게도 이 문헌을 제시하면서 가톨릭 대학교가 교회의 성장과 그리스도교 문화의 발달과 인간 발전에 필수적인 것임을 확인시킨다. 이런 이유로, 전체 교회 공동체는 가톨릭 고등교육 기관을 후원하고 또 그것들이 발전되고 개선되도록 항상 도와주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시민 사회 안에서 이 교육기관들이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고 또 경제적 도움을 주어야 하며, 특히 경제적 도움이 시급한 나라들 안에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하며, 어느 곳에서든지 새로운 가톨릭 대학교를 설립하려는 곳에는 필요한 자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일에 해야 한다.

나는 제2차 바티칸 공의 회의 가르침과 교회 법전의 지침에 근거한 이 규정들이 가톨릭 대학교 및 다른 고등 교육기관들로 하여금 새로운 천년 대를 여시는 은총 안에서 자신의 중요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

## 제1부

### 정체성과 사명

#### A. 가톨릭 대학교의 정체성

##### 1. 본성과 목적

12. 대학(university)으로서 모든 가톨릭 대학교들은 학문적 공동체이다. 그들은 엄중하고 비판적 방식으로 수행하는 연구와 교육 그리고 지역·국가·국제 공동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 및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학문적 공동체이다. 가톨릭 대학교는 자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도적 자율성을 지니며, 개인과 공동체의 권리 행사는 진리와 공동선의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대학 내 구성원들에게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다.

13. 가톨릭 대학교의 목적이 커다란 사회와 문화 문제들과 직면하는 대학 내에 그리스도교적 현존을 조직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므로 “가톨릭” (catholic)으로서 가톨릭 대학교들은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특징을 지닌다:

1. 가톨릭 대학교에 속한 개인 구성원 뿐 아니라 대학 공동체 자체의 그리스도교적 영감;
2. 대학의 연구활동을 통해 신장되는 인간 지식의 보화를 가톨릭 신앙에 비추어 끊임없이 성찰;
3.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달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에 대하여 충실성;
4. 삶에 의미를 주는 초월적 목표로 순례 중인 하느님 백성과 인류 가족에 봉사하는 대학의 조직적 헌신.

14. “위의 네 가지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가톨릭 대학교는 모든 대학교처럼 교육, 연구, 봉사를 수행하면서도, 대학의 조직적 헌신을 통해(by institutional commitment)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영감과 조명 하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톨릭 대학교에서는, 가톨릭적 이상과 태도와 원칙들이 대학활동의 특성과 자주성을 존중하면서도 대학 활동 안에 주입되고 스며들어야 한다. 한마디로, 대학(university)이며 동시에 가톨릭(Catholic)적 존재인 가톨릭 대학교는 인간 지식의 다양한 분야를 표현하는 학자들의 공동체이며 동시에 가톨릭 사상이 생동감있게 현존하고 작용하는 학문적 기관이 되어야 한다.“

15. 따라서 가톨릭 대학교는 학자들이 각 학문 분야의 합당한 연구방법으로 실재를 조사하여 인간 지식의 보고(寶庫)에 공헌하는 연구의 장이다. 가톨릭 대학교 안에 존재하는 각 개별 학문들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고, 더 나아가 다른 학문분야들과도 대화를 하여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들의 연구활동들은 인류가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교회가 특별히 오늘날 견지하고 있는 지식과 연구의 근본 가치를 확고하게 믿고 있음을 드러내는 효율적인 증거가 된다. 가톨릭 대학교 내에서 행해지는 연구활동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a) 지식들의 통합 모색, (b) 신앙과 이성간의 조화, (c) 윤리적 관심, 그리고 (d) 신학적 관점 등이다.

16. 지식들의 통합(integration of knowledge)은 하나의 과정(process), 언제나 불완전한 것으로 남아있을 과정이다. 더욱이 최근 수십 년간 지식의 급증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학문 분야들의 지식들을 통합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작업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들, 특히 가톨릭 대학교들은 진리 추구에 헌신하는 개별 지체들(학문들)들이 모여 하나가 되는 활기 넘치는 통합체(a living union)가 되어야 한다..... 개별 지식들을 높은 수준에서 통합함으로써, 인간 인격 안에 깊이 놓여있는 진리에 대한 갈증을 해결시킬 수 있다. “ 대학 교수들은 특별히 철학과 신학의 도움을 받아 복음과 로고스 그리스도, 즉 창조와 인간 역사의 중심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조명된 인간관과 세계관의 맥락에서 각 학문 분야의 상대적인 위치와 의미를 규정해야 한다.

17. 지식의 통합을 진전시키는 가운데, 가톨릭 대학교가 담당할 특별한 임무는 신앙

과 이성의 대화를 진전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신앙과 이성이 모든 진리들을 일치시키는 바가 깊이 있게 드러난다. 각 학문 분야는 고유의 학문적 특성과 연구방법을 견지하는 반면, 신앙과 이성의 대화는 “연구들이 참된 과학적 방식과 윤리적 규범들을 따라 수행될 경우에, 실제로 신앙과 절대 충돌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그 이유는 세상의 일들과 신앙의 관심사들은 모두 같은 하느님으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이다. “어떤 하나의 진리를 인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독특한 두 차원[신앙과 이성: 역자주]의 활발한 상호작용은 진리 자체를 향한 더 사랑으로 인도하고 인간 삶의 의미와 하느님의 창조의 목적을 더욱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18. 지식은 인간들에게 봉사할 때 의미가 있으므로, 가톨릭 대학교 안에서 수행되는 연구는 그 연구방법과 결과물의 윤리적 도덕적 의미를 헤아리는 가운데 항상 수행된다. 모든 연구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과학과 기술(technology) 분야에서는 이러한 윤리적 도덕적 관심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기술적인 것보다는 윤리적인 것이 우위에 있고, 사물보다는 인격이 수위에 있으며,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우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식은 양심에 부합할 경우에만 인간 존재 자체에 봉사할 수 있다. 과학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이 ‘인간의 인격은 세상의 것을 넘어서고, 하느님은 인간의 인격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만 진정으로 인류를 도울 수 있다.’ ”

19. 신학(Theology)은 신앙과 이성의 대화 뿐 아니라 전체적 지식들을 탐구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학은 다른 학문들이 자신의 존재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먼저 신학은 각 학문들로 하여금 자신의 연구결과물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철저히 고려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연구 방법론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관점과 방향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도와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학은 다른 학문들과 그들의 발견들을 접함으로써 더욱 풍요롭게 되어 오늘날의 세계를 보다 깊게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연구를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만든다. 다른 학문 분야들 가운데서도 신학이 갖는 이 특별한 중요성 때문에, 가톨릭 대학교는 반드시 신학대학 혹은 적어도 신학과를 갖고 있어야 한다.

20. 연구활동은 교육활동과 긴밀한 연관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수준 높은 연구들은 모든 교육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각 학문들은 고유한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교육하게 되지만, 만일 이들이 철학적 신학적 연구들을 도입하여 형성한 학제연구들(interdisciplinary studies)이 형성된다면, 이 학제연구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하는 사물들에 대해 유기적 비전을 얻고 또 지적으로 더욱 성장하려는 지속적인 염원을 개발하게 된다. 학제연구를 통해 강조되는 것은, 반성하는 인간 이성이 보다 심오한 질문들에 어떻게 개방되는지 또 이 질문들에 대한 완전히 대답은 어떻게 오직 신앙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각 학문이 담고 있는 도덕적 의미들을 교육과정의 내적 요소가 되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전 교육과정이 인격의 전인적 발전으로 방향 지어져야

한다. 끝으로, 신학은 성경, 교회의 전통, 교회의 교도권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교육하여, 인간 생명의 의미를 풍요롭게 하고 또 그 인간 생명에 새로이 품위를 부여하는 복음적

원리들을 의식하게 한다.

학생들은 학제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학문분야들을 공부하게 되어, 자기 분야의 유능한 인재가 되어 사회와 교회에 봉사하고, 동시에 신앙을 세상에 증거할 준비를 하게 된다.

## 2. 대학교 공동체

21. 가톨릭 대학교는 성령으로부터 힘을 얻는 진정한 인간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일치의 원천은 진리에 대한 공통적 헌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통적 비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톨릭 대학교에 독특한 성격을 부여하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메시지로부터 비롯하는 것이다. 이런 영감의 결과로, [가톨릭 대학교:역사] 공동체는 자유와 사랑의 영에 의해 활력을 얻으며, 상호 존경, 진지한 대화, 개인 권리의 보호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공동체는 그 구성원 각자가 인격체로서 온전히 성숙하도록 돕는 한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일치를 도모하면서, 각자의 역할과 역량에 따라 공동체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대학의 독특한 가톨릭적 특징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데에 공헌한다.

22. 가톨릭 대학교의 교수들(University teachers)은 자신의 능력을 증진시키고, 각 학문의 연구의 내용, 목표, 방법, 그리고 결과들을 일관된 세계관 안에서 수립하는 데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교수들은 신앙과 생활, 전문적 지식과 신앙적 지혜를 통합하는 참다운 신앙적 생활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증거자와 교육자로 불리었다. 모든 교수들은 학문적 이상들과 참으로 인간다운 삶의 원칙들로부터 영감을 받아야 한다.

23. 가톨릭 대학교의 학생들(students)은 인문적 소양과 특정한 직업적 훈련에서 모두 훌륭하게 학업을 수행하도록 도전 받고있다. 그중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은, 학생들이 진리와 그 진리의 의미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어떤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에 경탄하며, 경탄한 것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숙고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개인적 판단을 정하고 그리하여 자신의 종교적, 윤리적, 사회적 감각을 발달시키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진정한 그리스도교적 생활 방식을 접하게 되고, 혹은 만일 그들이 이미 그런 생활방식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심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모든 곳에서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의식하고, 준비된 미래의 지도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하는 열정을 지녀야 한다.

24. 가톨릭 대학교의 처장들과 행정가들(directors and administrators)은 봉사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대학과 그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한다.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대학직원들의 헌신과 증거는 대학교의 정체성과 생활에 필수적이다.

25. 많은 가톨릭 대학교가 수도회 단체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또 계속 그들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사도직에 헌신하는 이런 수도회들은 그들의 투신을 거듭



새롭게 하고 가톨릭 대학교의 사명에 적극 헌신할 수도자들을 계속 양성함으로써 대학교를 돕도록 촉구 받고 있다.

평신도(Lay people)들은 대학 활동 안에서 자신들이 오늘의 교회와 가톨릭 대학교 안에서 중요한 사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길을 발견한다. 또 오늘날 대부분의 가톨릭 대학교공동체는 주로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의 수효가 늘어남에 따라 대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하고 있다. 이 가톨릭 평신도들은 “특별한 문화적 장소 즉 교육의 세계에 있는 가톨릭 학

교와 대학 안에서 용기와 지성적 창조력의 표지로서 현존하라는” 교회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다. 가톨릭 대학교의 미래는 가톨릭 평신도들이 하는 유능하고 헌신적인 봉사에 상당히 달려있다. 교회는 그들의 성장을 교회의 희망의 표징으로, 또 교회와 세계 안에서 펼칠 평신도 역할을 확인해 주는 증거임을 알고 있다. 교회는 평신도들이 그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현세 사물들을 비추어 주고 관리함으로써 그 모든 것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자라서 창조주와 구세주에게 찬양이 되게 할 수 있다” 고 확신한다.

26. 무수한 가톨릭 제도들 중 하나인 대학교 공동체 안에는 다른 교회들, 교회적 공동체들과 종교들에 속한 일들 그리고 어느 종교도 신봉하지 않는 이들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도 모두가 다양한 학문 분야와 대학의 다른 업무들을 나아가게 하는 데에 자신의 직업적 숙련과 경험을 내어놓는다.

### 3.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가톨릭 대학교

27. 모든 가톨릭 대학교는 하나의 대학으로 존속하면서도, 교회와 맺는 관계를 자신의 정체성의 본질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대학교는 자신이 위치한 지역 교회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학문적 기관인 가톨릭 대학교는 학문과 탐구에 헌신하는 국제적 공동체들의 지체이기에, 세계 교회의 생활과 사명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것이며, 또 전체 교회에 맡겨져 있는 일치에 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황청과 특별한 유대를 맺는 것이다. 가톨릭 대학교가 교회와 근원적으로 유대를 맺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교 메시지에 대학조직 차원의 충실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신앙과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교도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포함한다. 대학의 가톨릭인들 역시 교회에 대한 개인적 충실성과 이것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학교는 그의 비가톨릭 구성원들의 종교적 자유를 존중해주는 한편, 비가톨릭 구성원들도 대학교의 가톨릭적 특성을 존중해야 한다.

28. 주교들은 가톨릭 대학교를 발전시킬 책임이 있으며, 특히 대학들이 자신의 가톨릭 정체성을 보호하고 강화하고, 사회 권력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는 대학과 교회 사이에 상호신뢰와 긴밀하고 항구한 협력, 그리고 지속적인 대화로써 인격적이고 사목적인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을 때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주교들이 대학의 내부 운영에 직접 가담하고 있지 않을 지라도, 그들은 “외부인이 아니라 가톨릭 대학교의 생활의 동참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29. 교회는 “인간 문화, 특히 과학들의 합법적 자율성”을 존중하며, 각 학자들이, 진리와 공동선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학문 분야의 고유한 원리와 적합한 방법론들에 입각하여 행하는 학문적 자유(academic freedom)를 인정한다.

신학은 다른 학문 분야와 같이 대학교 내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갖는다. 신학은 적합한 학문적 원리와 방법을 지니므로 학문의 한 분야로 규정된다. 신학자들은 그들이 신학의 원리와 방법론에 충실하는 한 같은 학문적 자유를 누린다.

주교들은 신학자들이 창조적 작업을 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신학자들은 신학적 방법론을 입각한 방식으로 연구활동을 함으로써 교회에 봉사한다. 그들은 성서와 성전 그리고 교회의 교도권 안에서 전달되는 그리스도교 계시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시키고 발전시키며 보다 효과적으로 전수

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또한 신학이 현대 문화가 제기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복음의 빛을 드리울 수 있는 길을 연구한다. 동시에 신학은 주교들만이 진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계시 진리를 이

해하려고 학문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자신의 연구 원리와 방법론 그리고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주교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며 또한 교육되는 내용의 권위 정도[민을 교리 등: 역자 주]에 따라 교회의 가르침에 동의해야 한다. 주교들과 신학자들의 이런 긴밀한 관계 때문에, 주교와 신학자 사이의 대화는 필수적이다. 양자의 대화는 특히 신학적 연구의 결과들이 매체를 통하여 너무나 빨리 또 광범위하게 전달되는 오늘날에는 더욱 중요하다.

## B. 가톨릭 대학교의 봉사 사명

30. 대학의 기본적 사명은 연구를 통한 지속적인 진리 추구 그리고 사회의 선익을 위한 지식의 보존과 전달이다. 가톨릭 대학교는 자신의 독특한 특징과 목표를 가지고 이런 기본적 사명에 참여한다.

### 1. 교회와 사회에 대한 봉사

31. 가톨릭 대학교는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하여 교회에 긴요한 공헌을 한다. 사실, 가톨릭 대학교들은 그리스도교 원리로부터 영감을 받아, 사람들로 하여금 성숙되고 책임 있게 자신의 신앙적 소명을 따라 살도록 함으로써 미래에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을 남녀들을 준비시킨다. 더욱이 가톨릭 대학교는 과학적 탐구의 결과들을 교회에 제공해 줌으로써 교회가 이 시대의 문제와 필요에 응답하도록 도와준다.

32. 가톨릭 대학교는 다른 모든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가톨릭 대학교는 교회에 대한 봉사의 확장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역량이 닿는

한에서, 개인과 사회를 위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라는 소명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가톨릭 대학교가 수행하는 연구들은 인간생명의 존엄성, 정의 실현의 추구, 개인과 가정의 삶의 질, 자연 보호, 평화와 정치적 안정의 추구, 세계 자원의 보다 공평한 분배, 그리고 국내·국제 수준의 인간 공동체에 더 잘 봉사하게 될 새로운 경제적 및 정치적 질서 같은 현대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다. 가톨릭 대학교에서 수행되는 연구들은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의 윤리적 및 신학적 차원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문제의 뿌리와 원인을 찾게 될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가톨릭 대학교는 일반 여론들이 언짢고 거북하게 느껴지는 진리들을 사회의 근본적 선의를 수호를 위해서 용감하게 발언해야 한다.

33. 가톨릭 대학교가 특별히 앞장서 수행해야 할 임무는 현대 사회와 문화의 지배적인 가치들과 규범들을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 그리고 인간 삶에 충만한 의미를 부여하는 윤리적 및 종교적 원칙들을 사회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 임무를 통해, 가톨릭 대학교는 그리스도교의 인격 위에 기초를 둔 참다운 그리스도교 인간학의 발전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교 인간학은 삶의 문제들의 실재와 올바른 해법에 초점을 맞춘 창조와 구속의 역동성을 전달해 줄 것이다.

34. 사회 정의의 촉진하는 이들에게 봉사하는 그리스도교 정신은 각 가톨릭 대학교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교수들에 의해 전파되어 학생들 가운데서 발전되어야 한다. 교회는 모든 이들의 전

인적 성장을 위하여 확고하게 투신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의 사회적 교리 안에서 해석되어 “굶주림, 비참함, 풍토병과 무시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이들; 문명의 혜택을 폭넓게 함께 나누고 자신의 인간 삶의 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향상시키려고 애쓰는 이들; 자아의 완전한 성취를

목표로 삼는 이들의 발전”을 촉진하라고 긴급히 요청한다. 모든 가톨릭 대학교는 자신이 일하는 사회의 발전에 구체적으로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가톨릭 대학교는 대학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특히 가난한 이들과 소수민족들이 쉽사리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가톨릭 대학교는 또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새로이 탄생하는 국가들의 발전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35. 가톨릭 대학교가 인간 삶과 사회의 다양한 많은 측면들을 드러내는 복잡한 이슈들을 해결하려면 이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학문 분야들의 협력을 강조해야 한다. 더욱이 하나의 가톨릭 대학교가 갖고 있는 경제적, 인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립학교 및 국립 학교와는 물론이고 가톨릭 대학교들 사이에서 수행하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 프로젝트나 또는 대학교의 특유한 활동을 위해서는 가톨릭 대학교들 사이를 연결하는 다양한 국내 및 국제 연합회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들 연합회들 가운데 특별히 기억되어야 할 것은 교황청에 의해 설립된 국제가톨릭 대학교연합회(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atholic Universities)이다. 교황청은 이 연합회와 더욱 유익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36. 가톨릭 대학교는 지속적 교육(continuing education)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자들의 자문활동을 통해서, 현대적 대중매체들 통해서, 또 그 외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지식 전체를 성장시키고, 보다 넓은 대중들에게 신앙을 더 잘 이해시키며, 그리하여 학문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서 대학교의 봉사를 확장한다.

37. 가톨릭 대학교는 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자신이 위치한 교구의 학문적, 문화적, 과학적 세계와 특별히 관련을 맺어야 한다. 가톨릭 대학교들과 국내 다른 대학교들은 발전, 타문화 이해, 그리고 국제 환경 상태를 고려한 자연 보호에 대하여 새로운 대화와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

가톨릭 대학교는 다른 사립 및 공립 교육기관들과 결속하여 고등교육과 연구를 통해 공공 이익에 봉사한다. 가톨릭 대학교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많은 기관들 중 하나이며, 사회와 세계 안에서 연대성과 그 의미를 촉진시킬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가톨릭 대학교가 시민사회와 공권력이 자신의 조직적 자주성과 학문적 자유를 인정해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아가 가톨릭 대학교는 자신 지속적 존재하고 발전하는 데에 꼭 필요한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 2. 사목적 봉사

38. 가톨릭 대학교의 사목적 봉사는 대학 구성원들이 종교적 원리와 도덕적 원리를 자신의 학문 활동들 혹은 비학문적 활동들에 접목시켜 자신의 신앙과 삶을 통합하게 하는 활동이다. 그것은 대학교를 통한 교회 사명의 일부이며, 대학의 조직체계와 일상활동에 있어서 가톨릭 대학교를 지탱하는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자신의 가톨릭적 특징을 촉진시키는 고심하는 가톨릭 대학교 공동체는 이 같은 사목적 차원을 깊이 인식하고 이런 특징이 대학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39. 대학 공동체는 가톨릭적 정체성을 자연스레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자신의 매일 활동 내에서 신앙을 실천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깊은 반성과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한다. 이 공동체의 가톨릭 구성원들에게는 가톨릭의 교리와 관습을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게 만드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또 그들을 성사들, 특히 가장 완전한 공동체 예배 행위인 성체 성사의 거행에 참여하도록 자극

해야 한다. 대학교 공동체 안에 다른 교회들, 교회적 공동체들 혹은 타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과 따라 반성하고 기도 할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40. 사목적 봉사를 수행하는 이들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신체적 또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한층 더 깨닫도록 독려해야 한다. 사목적 봉사자들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종교적 불의에 고통을 겪는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 이런 책임은 대학교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지만 그 영역을 넘어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41. 사목적 봉사는 가톨릭 학생들을 세례의 완성인 교회 생활에의 적극적인 동참을 준비시키는 필수적인 도구이다. 사목적 봉사는 혼인과 가정 생활의 가치를 개발, 양육하며,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를 육성하고, 평신도들의 신앙적 투신을 자극하고, 또 모든 활동이 복음의 정신에 젖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톨릭 대학교의 사목적 봉사와 교구의 다른 봉사들이 교구장의 감독 혹은 승인 하에 이루는 긴밀한 협력관계는 이 두 봉사의 상호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42. 영성적 혹은 사도적 생활을 위한 다양한 연합회나 운동들, 특히 학생들을 위하여 개발된 그 같은 단체나 운동들은 가톨릭 대학교의 사목적 측면을 발전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3. 문화적 대화

43. 그 본질상 대학교는 연구를 통하여 문화를 발전시키고, 교육을 통하여 지역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데 일을 도와주고 또 교육적 서비스를 통하여 문화 활동을 후원한다. 대학교는 모든 인간적 경험에 대해 개방되어 있고 또 어떤 문화와도 대화하며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가톨릭 대학교는 교회 고유한 문화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이런 문화적 대화에 참여한다. 아울러 인간적 문화가 하느님의 계시와 초월성에 개방되어 있음을 의식할 때, 가톨릭 대학교는 복음과 문화간의 풍요로운 대화를 위한 우선적이고 특별한 장소이다.

44. 이 문화적 대화를 통하여 가톨릭 대학교는 교회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들을 더 잘 이해하고, 문화들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들을 식별해 내며, 그것들이 진정으로 기여하는 바를 받아들이면서 또 특정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신앙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방법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복음이 어느 특정 문화와 동일시 될 수 없고 모든 문화를 초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음에서 선포된 하느님의 나라는 특정한 문화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 의해 구현되고, 또 하느님 나라의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간적 문화 혹은 문화들의 요소들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인간과 문화로부터 곁도는 신앙은 하느님의 말씀이 나타내고 계시하는 것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신앙이며, 반토막 신앙이며, 더 나쁘게는 자기 소멸의 과정으로 치닫는 신앙이 되고 말 것이다.”

45. 가톨릭 대학교는 현대 세계의 문화들과 교회 내에 현존하는 다양한 문화적 전통들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복음과 현대사회 사이에 지속적이고 유익한 대화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문화의 가치들을 결정짓는 기준들은 인간 인격의 의미, 인간의 자유, 존엄성, 책임감, 그리고 초월적인 것으로 향한 개방성 등이다. 인간에 대한 존중은 모든 문화의 기초 단위인 가정의 지고한 가치와 연결된다.

가톨릭 대학교는 현대 문화가 추구하는 것과 그것이 지닌 모순적인 것 모두를 식별하고 평가하여 현대 문화가 개인들과 민족들의 전체적 발전에 보다 적합한 것이 되도록 만든다. 구체적으로, 가톨릭 대학교는 적절한 연구들을 수행함으로써 현대의 기술, 특히 대중매체가 사람들, 가정들, 기관들, 그리고 현대 문화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깊이 살필 필요가 있다. 전통적 문화들은 인류 전체의 재산인 그들의 고유한 유산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가치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안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전통적 문화들로 둘러싸여 있는 대학들은 지역 문화를 현대 문화의 긍정적 요소들과 조화시킬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46. 가톨릭 대학교가 특별한 관심을 두는 영역은 그리스도교 사상과 현대 과학의 대화이다. 이 대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학문들에 능통하면서 동시에 신학적으로 적절한 훈련을 받아 신앙과 이성의 관계 하에서 인식론적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대화는 인문과학들 뿐 아니라 새롭고 복잡한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자연과학들에도 해당된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학자들은 인간적 지성이 하느님의 말씀에서 비롯한 상위의 진리에 의해 풍요롭게 되는 길을 드러내야 한다: “인간 지성은 깊은 이해의 내적 원천인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서 연유된 가치들의 순위에 의해서 자극 받고 강화되며 결코 감소되지 않는다..... 가톨릭 대학교는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진리 추구 외에 다른 것을 위해 사용될 경우 소멸될 위험이 있는 영혼의 우위성이 드러나도록 도와야 한다.”

47. 문화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가톨릭 대학교는 자신의 특수한 목표에 충실하며, 다양한 종교적-문화적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교회 관할권자에 의해 반포된 지침을 따르면서 교회 일치성을 위한 대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톨릭 대학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추구를 촉진할 수 있다. 타종교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톨릭 대학교는 상이한 종교들 안에 현존하는 영적 가치들을 식별하는 데에 협력한다.

#### 4. 복음 선교

48. 교회의 으뜸가는 사명은 복음선포이다. 이 복음선포는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 상황 또는 그들이 살고 행동하고 교류하는 사회-문화적 상황 가운데서 신앙과 삶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복음 선교란 “기쁜 소식을 모든 계층의 인간들에게 전해 주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인류를 내부로부터 변혁시켜 새롭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보다 넓은 지리적 영역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하느님의 말씀 및 구원 계획과 상반되는 판단의 기준들, 가치들, 관심사들, 사고의 흐름들, 영감을 얻는 원천, 그리고 생활의 유형들에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전복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49. 가톨릭 대학교는 본성적으로 교회의 복음 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 가톨릭 대학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조직적 증인으로, 특히 세속주의로 대표되는 문화들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메시지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문화들 안에서 더욱 중요한 존재이

다. 더욱이 가톨릭 대학교의 모든 기본적 학문 활동은 교회의 복음 선교 사명에 관련되어 있고 그것과 조화를 이룬다: 연구 활동은 새로운 발견들을 개인과 사회를 위한 봉사 에 이용하라는 신앙적 메시지의 빛 안에서 전개되고; 교육은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판단을 내리고 인간의 초월적 존엄성을 의식하도록 양성하는 신앙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며; 직업 훈련은 윤리적 가치와 봉사 의식을 개인과 사회에 심어주며; 문화와의 대화는 신앙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신학적 연구는 신앙을 현대 언어로 쉽게 풀이해 준다. “분명히 말하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수행할 자신의

구원 사명을 점점 더 많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교회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이런 연구 기관들을 갖기를 원하며, 이들이 그리스도의 참다운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일을 위해 존재하고 운영되기를 바란다.”

## 제2부

### 일반규범

#### 제1조 일반규범의 본질

① 이 [일반규범]은 교회 법전과 교회의 보완 규정에 근거하고 이를 더욱 개발시킨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 이에 개입한 교황청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 규범들은 전세계의 모든 가톨릭 대학교와 가톨릭 고등 교육기관에 적용된다.

② [일반 규범]은 교회 법전 및 교회의 보완 규정과 일치하는 한 주교 회의와 다른 주교들의 모임의 결정에 의해 교구와 지역(관구)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며, 이때 각 대학교나 교육기관의 정관들과 관련 시민법을 가능한 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교구와 지역(관구)의 “규정” 들은 교황청의 검토를 거친 후에 교회적 대학교와 대학들 (Ecclesiastical Universities and Faculties)을 제외한 해당 지역의 모든 가톨릭 대학교와 다른 가톨릭계 고등 교육기관들(Catholic Universities and Catholic Institutions)에 적용된다. 가톨릭 대학교의 부분인 교회 대학들을 포함한 교회 대학교들은 현장 [그리스도인의 지혜: Sapientia Christiana]의 규정을 따른다.

③ 교황청, 교구 주교회이나 다른 주교들의 모임, 또는 교구장에 의해서 설립되거나 승인 받아야 하는 가톨릭 대학교는 [일반규범]과 교구와 지역(관구)의 보완 규정들을 대학운영에 관한 문서에 충분히 반영하고, 대학의 정관들을 [일반 규범]과 그 적용 규정들에 비추어 확정하여 교회 관할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른 가톨릭 대학교들, 즉 위에서 언급한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신 교구의 교회적 관할권자의 동의에 의

해 설립 혹은 승인된 가톨릭 대학교들은 이 [일반 규범]과 교구와 지방(관구)의 보완 규정들을 대학 운영에 관한 모든 문서에 충분히 반영하고, 대학의 정관들을 [일반 규범]과 그 적용 규정들에 가능한 한 충분히 비추어 확정한다.

## 제2조 가톨릭 대학교의 본질

① 가톨릭 대학교는 다른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인간 지식의 여러 분야들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공동체이다. 가톨릭 대학교는 자신의 문화적 사명에 따라 연구하고 교육하고 여러 종류의 봉사 활동에 투신한다.

② ‘가톨릭’ 특징을 지닌 가톨릭 대학교는 가톨릭적 이상, 원리, 태도를 담은 연구, 교육, 다른 활동을 전파하고 행한다. 교회와 가톨릭 대학교는 공식적, 필연적, 법적 관계로 인해, 혹은 대학을 책임지는 이들에 의한 조직적 헌신으로 인해 연결된다.

③ 모든 가톨릭 대학교는 교회 관할권자로부터 따로 공인 받은 무엇이 없는 경우에는, 대학의

사명 선언문과 다른 합당한 공적 문서들 안에 대학의 가톨릭적 정체성을 명시해야 한다. 대학교는 특히 자신의 구조와 규정들을 통해서 ②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가톨릭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야 한다.

④ 가톨릭적 교리와 규율이 모든 대학 활동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한편 각 인격의 양심의 자유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대학교의 모든 공적 활동이나 임무 수행은 그 자신의 가톨릭적 정체성과 일치되어야 한다.

⑤ 가톨릭 대학교는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고유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율성을 지닌다. 연구하고 가르칠 자유는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가 진리와 공동선의 범위 안에 머무는 한 각 개별 학문 분야의 원리들과 방법들에 따라 존중된다.

## 제3조 가톨릭 대학교의 설립

① 가톨릭 대학교는 교황청, 교구 주교 회의, 또는 다른 주교들의 모임, 혹은 교구장에 의해 설립되거나 승인 받을 수 있다.

② 교구 주교의 동의하에, 가톨릭 대학교는 수도회 또는 다른 공동 법인에 의해서도 설립될 수 있다.

③ 가톨릭 대학교는 그 외의 다른 교회적 인물이나 평신도에 의해서도 설립될 수 있다. 이 경우, 교회 관할권자와 설립자 쌍방이 동의 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하여 관할권



자의 인준이 있을 때만 가톨릭 대학교로서의 명칭을 지닐 수 있다.

④ ①과 ②의 경우에 정관은 교회 관할권자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 제4조 대학교 공동체

① 대학교의 가톨릭적 정체성을 보전하고 강화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대학교 자체에 주어져 있다. 이 책임은 주로 (지위가 있을 경우에, 대학교 총장이나 이사회 혹은 그와 유사한 경영진을 포함한) 대학 당국자들에 맡겨지는 반면에 대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도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그 책임을 나누어 맡고 있으며 또한 따라서 이 책임 수행을 위하여 적합한 대학교 직원들, 특히 가톨릭적 정체성을 자발적으로 증진시키려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교수와 직원들이 충원되어야 한다. 가톨릭 대학교의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교수의 질적 수준과 가톨릭 교리에 대한

존중과 연관되어 있다. 교회법 안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 이 두 가지 근본 요소를 감독하는 것은 교회 관할권자의 책임이다.

② 모든 교수와 모든 직원은 임명받을 때에 그들이 대학의 가톨릭 정체성과 그와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증진시키거나 혹은 적어도 존중해야 할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잘 알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③ 모든 가톨릭 교수들은 자신의 학문 분야에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연구와 교수 활동에 있어서 가톨릭 교리와 윤리에 충실해야 하며 다른 교수들도 그것들을 존중해야 한다. 특히 가톨릭 신학

자들은 그 자신이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성서와 성전의 진정한 해석자인 교회의 교도권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④ 다른 교회들, 교회적 공동체들, 타종교에 속하는 대학 교수와 직원들은 물론이고 종교를 갖지 않은 이들과 모든 학생들도 가톨릭 대학교의 특유한 가톨릭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비가톨릭 교수의 수요가 대학 내에 다수를 차지하게 하여, 가톨릭기관이고 또 앞으로도 가톨릭기관이어야 할 가톨릭 대학교이나 가톨릭 고등 교육기관의 가톨릭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그들의 학문적 및 지적 성장을 윤리적 종교적인 원칙과 교회의 사회교리에 통합되어야 하며, 다양한 전문적 직업을 위해 마련된 전공 프로그램들은 그 전문직에 내포된 적절한 윤리성을 담고있어야 한다. 또한 가톨릭 교리에 관한 강좌들이 개설되어 모든 학생들이 들을 수 있어야 한다.

#### 제5조 교회 안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① 모든 가톨릭 대학교는 보편 교회 및 교황청과의 친교를 유지해야 한다. 즉 대학교는 교구와 그리고 특히 그것이 소재한 지역이나 국가의 교구주교들과의 긴밀한 친교 속에 있어야 한다. 가톨릭 대학교는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교회의 복음 선교에 공헌해야 할 것이다.

② 교구장 주교는 교구 내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의 복지를 증진시킬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가톨릭적 특성이 보존되고 강화되는지 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지닌다. 가톨릭적 특성과 관련하여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에, 교구장 주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교황청의 도움을 받아 해당 대학의 당국자들과 함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3조의 ①과 ②에서 언급되고 있는 가톨릭 대학교들은 정기적으로 대학과 그 활동에 관한 정보를 교회 관할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6조 사목적 봉사

① 가톨릭 대학교는 대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사목적 배려를 증진시켜야 하고 또 특별히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톨릭 교리에 비추어 인간적

이고 전문적 교육을 종교적 가치들에 통합시키는 방법을 발전시켜, 지성적 학습을 삶의 종교적 차원에 결합시켜야 한다.

② 대학 안의 많은 인재들(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은 대학 공동체를 위한 사목적 봉사를 하고, 교구 주교의 지도와 인준 하에서 지역 교회의 사목 활동들과의 조화와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대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목을 도와주고 또 사목적 활동에 협력해야 한다.

## 제7조 협력

①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에 보다 잘 대처하고 대학의 가톨릭 정체성을 강화

하기 위하여, 연구, 교육과 다른 대학 활동들을 위하여 교회 대학교와 대학들을 포함한 모든 가톨릭 대학교들 안에서 지역, 국내, 국제 차원의 협력이 증진되어야 한다. 그러한 협력은 또한 가톨릭 대학교와 다른 대학들, 또한 사립 혹은 국립 연구교육 기관들과도 촉진되어야 한다.

② 가톨릭 대학교는 가능하다면 또 가톨릭적 원칙과 교리에 부합하는 한 정의와 개발과 진보를 위하여 정부 프로그램과 그리고 국내 및 국제 기구의 프로그램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

## 잠정적 규범

### 제8조

이 헌장은 1991학년도 학기 개학날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 제9조

이 헌장의 적용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들을 반포할 의무를 지고 있는 바티칸의 가톨릭 교육성에 위임되어 있다.

### 제10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경이 요구할 경우에 헌장이 가톨릭 대학교의 요구들에 지속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 헌장의 개정을 제안하는 것은 가톨릭 교육성의 권한에 속한다.

### 제11조

구체적 법률이나 관습들 중 이 헌장에 상반되는 것들은 모두 폐지된다. 또한 교황청이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여해 주었으나 이 헌장에 상반되는 특권은 이날로 말소된다.

## 결 론

교회가 큰 희망을 걸고 가톨릭 대학교에 부여한 사명은 아주 중요한 문화적 종교적 의미를 지니는데, 그것은 이 사명이 인류의 미래와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톨릭 대학교의 쇄신은 대학 자신이 개인과 사회, 그리고 다양한 문화 속에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를 더 잘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개인이든 사회이든 모든 인간적 존재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해방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간들과 그들의 활동들, 즉 문화로써 가장 지고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활동들이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문화를 해방시키는 교회의 구원 행위는 무엇보다도 개별적 인격들, 가정들, 그리고 교육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학, 예술, 인문학 그리고 현대 문화로부터 개발된 많은 분야들을 진전시키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 빛과 희망을 주신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자녀들은 자신의 사명을 의식해야 하며 또 복음의 힘이 어떻게 개별 문화들 뿐 아니라 인간적 견해들과 정신 자세에 영향을 주는 지배적인 가치관들과 사고방식에 침투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복음의 힘에 의해 재생산하는 지를 발견해야 한다.”

강렬한 희망을 가지고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톨릭 고등교육의 중대한 사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헌을 제시하는 바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모든 문화의 미래를 위한 복음 선교를 위하여 더 중요해지고, 절박해지고, 필요해진 여러분의 일상 업무과제에 대하여 나의 변함없는 격려와 신뢰를 보낸다. 교회와 세계는 여러분의 증거 그리고 유능하며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공헌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교황 재위 제12년,

1990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